

(영국) 해외관광시장 동향 - 2026년 9월

'26. 9월 / 한국관광공사 런던지사

□ 영국 방한시장 일반

○ 한국 ↔ 영국 관광교류 현황

- 한국인 ⇒ 영국 방문 : '24년 16.9만 명으로 전년대비 7.1% ↓

- 영국인 ⇒ 한국 방문 : '25년 17.2만 명으로 전년대비 16.5% ↑

'26년 1~8월 기간 14만 명, 전년 동기비 24.6% ↑

(단위 : 명)

연 도	영국→한국	한국→영국	비고
2019	143,676	301,000	
2023	121,376	182,000	
2024	147,493	169,000	
2025	171,940	확정 통계 미발표	
2026. 1~8월	141,530	확정 통계 미발표	

* 한국인 영국방문 통계 <https://www.visitbritain.org/research-insights/inbound-markets>

* 영국인 한국방문 통계 한국관광공사 내부 통계자료 참고

○ 한국 포함 아시아 주요 국가 영국인 방문 통계

(단위 : 명)

연도	태 국	싱가포르	일 본	홍 콩	한 국	대 만
2019	946,774	607,821	424,383	470,295	143,676	115,641
2024	965,862	579,516	437,230	294,438	147,493	96,237
2025	1,083,162	587,356	535,004	339,097	171,940	108,078
2026	677,599 (1-8월)	323,666 (1-7월)	364,800 (1-8월)	218,824 (1-7월)	141,530 (1-8월)	60,251 (1-7월)
'26/'25증감 (전년 동기)	△4.4%	△8.2%	+5.8%	+13.4%	+24.6%	△4.4%

* 국가별 관광공사 공식 사이트 통계자료 참고

○ 영국(히드로 공항)→한국(인천 공항) 항공노선 현황 ('26. 9월 현재)

항공사	코드	출발시간	편수	편당 좌석수	주간 좌석수
대한항공	VS208	20:10	주7편	282	1,974
아시아나	KE908	19:35	주7편	311	2,177
버진애틀란틱	OZ522	14:10	주7편	258	1,806

* 항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

□ 9월 주요 동향

(정부 동향)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영국관광공사는 다양한 인·아웃바운드 캠페인 추진 중. 정부차원의 해외관광객 면세쇼핑 제도, 지자체 관광세 운영 등 제도개선 논의가 영국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

○ 잉글랜드 관광공사(VisitEngland), 해양관광 활성화 캠페인 전개

- VisitEngland가 내국인 해안지역 여행을 촉진하고 관광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올가을부터 2027년까지 진행
- 본 캠페인 타이틀은 'All on England's Coast'로 영국 해변의 야생동물 체험, 역사·문화, 음식, 해변 휴양 등 해안지역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.
- 'All on England's Coast' 캠페인은 라디오, 팟캐스트, SNS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해 대대적으로 국내 해양관광을 홍보할 계획으로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의 실질적 방문을 유도할 것이라고 함.
- 한편, 조사에 따르면 영국인 국내 해안지역 여행은 전년 대비 18% 감소했으며, 여행기간 단축 및 소비지출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○ 영국 관광공사(VisitBritain), 호주 아웃바운드 유치 강화 추진

- VisitBritain은 최근 26개 영국 관광업계 및 지자체와 함께 호주업계 대상 대대적인 판촉 추진 중. 450여 명의 호주 여행업계 관계자와 총 1,000건 이상의 비즈니스 미팅을 추진할 예정.
- VisitBritain 관계자는 영국 인바운드 시장에서 호주는 미국, 프랑스, 독일에 이어 네 번째로 규모가 큰 시장으로, '27년 호주 관광객들이 약 18억6천만 파운드 소비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.
- 또한, '26년 기준 약 110만 명의 호주인이 영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 다만 이 예측치는 '24년 120만 명보다 감소한 수준임.
- 한편, British Airways는 '27년 1월 11일부 멜버른-런던 신규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며 '27년 말에는 Qantas의 시드니-런던 직항편이 운항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언급함.

○ 영국 보수당,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쇼핑 부활 공약

- 영국 보수당(Conservative Party)이 EU 역외국 관광객 대상 면세쇼핑 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. '21년 면세제도 폐지 이후 영국의 관광·쇼핑 경쟁력이 유럽 관광목적지에 비해 약화됐다고 주장.
-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면세쇼핑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입증될 경우, EU 관광객에게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.
- 한편, 과거 영국은 해외여행객이 영국에서 물품 구매 뒤 부가세(VAT)를 환급해주는 VAT Retail Export Scheme(부가세 소매수출제도)을 운영하였으나 '21년 이 제도를 폐지하였음. 영국 유통업계는 오랫동안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쇼핑 제도의 재도입을 요구해 왔음.

○ 영국 총리, 지자체 '관광세 부과' 방식 제도 개선 추진

- 앤디 번햄(Andy Burnham) 총리는 상한선 없는 관광세(tourist tax) 도입 권한을 잉글랜드 지역 시장들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.
- 숙박요금 내 정액비율이 아닌 일정비율로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는바 영국정부는 이러한 방식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숙박상품 선호로 이어져 중저가 여행 수요를 보호할 것이라고 판단.
- 한편, 영국 숙박·외식업계는 이에 대해 국내여행 수요가 저하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, 관광세 대신 국내여행을 지원하는 '홀리데이 보너스(holiday bonus)'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는 상황임.

(항공/여행업계)

- 대내외 관광여건 불확실에도 영국 소비자들의 예약률은 개선
- 아시아 전문 여행사 Inside Travel, 지역관광 특화상품 출시 확대
- 세계에서 공항세가 가장 비싼 공항인 런던 히드로 공항, 내년 공항 이용료 추가 인상 논의 등

○ 올해 여행상품 소비자 예약률 전년 대비 호조

- 여행컨설팅업체 Travel Trade Consultancy(TTC) 조사 결과, 업계 3분의 2가 올해 상품예약 실적이 전년보다 개선되었다고 말함.
- '27년 출발 예약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답변이 60%인 반면 전년수준은 30% 예약이 감소했다는 답변은 10% 수준으로 나타남.
- 영국 여행업계는 올해 중동 지역 분쟁, 비용 상승, EU 출입국 시스템(Entry/Exit System·EES) 시행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예약률이 개선된 것은 불확실한 여행 여건에도 영국 소비자들의 수요는 견고하다고 분석.

○ Inside Travel 여행사,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지역 홍보 전략 확대

- 영국 대표 아시아 전문 여행사인 Inside Travel은 인지도가 낮은 아시아 지방을 홍보하는 '언더투어리즘(undertourism)' 전략으로 최근 일본 지역 지역관광지 모객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.
- 여행사는 이와 같은 지역관광 상품을 한국, 인도, 베트남, 태국 등 주요 아시아 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.

○ 태국정부, 영국·아일랜드 관광객 무비자 체류기간 단축

- 태국정부가 이달부터 영국, 아일랜드 관광객의 무비자 체류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시행함. 이로서 코로나 이후 관광객 유치에 위해 비자제도를 완화했던 2년 전 정책이 폐지되게 됨.
- 새로운 규정은 '26.9.15일부터 시행되며 영국과 아일랜드 관광객이 태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려면 별도 신청해야 함.

- 한편, 태국관광부(Tourism Authority of Thailand·TAT)는 이번 조치가 일반적으로 평균 2-3주 정도 태국여행을 하는 영국, 아일랜드 관광객들의 태국 방문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.

○ 히드로 공항, 내년 1월부터 공항이용료 인상 가능성

- 히드로공항이 내년 1월부터 승객 1인당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공항이용료(airport charge)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짐. 이는 영국 항공당국은 승객 1인당 임시 공항이용료 상한을 28.66파운드로 책정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지난 6월 제시했던 28.40파운드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됨.
- 영국 민간항공청(Civil Aviation Authority·CAA)은 향후 공항이용료 체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적용되는 이번 임시조치가 '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' 이라고 밝힘.
- 한편 히드로공항 관계자는 공항 확장사업에 발생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용료 상한을 인당 30.77파운드까지 해야한다고 밝힘.

(영국 관광수요 동향)

- 8월 기준 여행소비지출이 반등한 가운데 시장에 소비자 수요 신뢰 회복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.
- 영국 여행업계는 최근 1인 여행 소비자 수요에 주목

○ 영국 여행업계, 2027년 '나홀로 여행 트렌드' 주목

- 여행업계는 최근 영국인의 1인 여행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여행사들이 이러한 시장 트렌드를 업계가 활용해야한다고 권고.
- 올해 1인 여행상품 예약률이 전년 대비 45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크루즈 상품 또한 1인 예약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한편, 여행사 조사에 따르면 1인 여행객은 평균적으로 출발 약 8.5개월 전 상품을 예약하기 때문에 '27년 수요 유치를 위해 빠르게 여행사 상품구성, 소비자 문의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.

○ 걸프 지역을 경유하는 장거리 여행 신뢰 회복 조짐

-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, 걸프지역 경유 해외여행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조사됨.
- Harris Poll UK가 지난달 영국인 1,000명 대상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, UAE 공항을 경유해 여행 하는 것이 편안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30%로 지난 6월 22%보다 8%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힘.
- 다만, 여행업계는 여전히 소비자들의 걸프지역 자체를 목적지로 선택하는 데에는 주저하고 있다고 분석함.

○ 영국인 여행소비 지출규모 8월 반등 상승, 국내 여행 숙박도 증가

- 영국인 여행 관련 지출규모가 감소세를 끝내고 8월 반등한 것으로 조사됨. Barclays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, 여행사 카드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.4% 증가했으며 거래건수도 7.4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- 항공 관련 지출도 '25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, 전년 동월 대비 3.5% 증가했으며 거래 건수도 1% 늘었음. 특히, 전체 여행 관련 지출은 8월 3.1% 증가해 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.
- 한편, Barclays의 호텔숙박 관련 지출 분석에 따르면 '26년에는 해외여행보다 영국에서 휴가를 보내는 스테이케이션(staycation) 여행객 비중이 36%로, 해외여행을 선택한 비중 33%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말함.

(한국 관련 기사 동향) 서울 종로3가 Time out 매체 선정 가장 ‘쿨한 동제’ 1위 선정, 제주 올레 관련 기사 등 한국관광 관련 이슈를 주요 기사로 보도

○ 한국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, 제주올레의 특별한 이야기

출처 : Telegraphi (9.18, 금요일)

<https://www.telegraph.co.uk/travel/south-korea-jeju-olle-trail-chance-meeting-sooky/>

- 서울 종로3가, 2026년 세계에서 가장 ‘쿨(Cool)한 동네’ 1위 선정
출처 : Independent (9.17, 목요일)
<https://www.independent.co.uk/travel/news-and-advice/worlds-coolest-neighbourhoods-asia-seoul-b3051849.html>
- 한국 고궁 입장료, 2027년부터 인상 전망
출처 : Travelmole (9.12, 토요일)
<https://travelmole.com/news/south-korea-royal-palaces>
- 서울 미술랑 스타 레스토랑, 개미가 들어간 디저트 제공해 별금형
출처 : The Guardian (9.16, 수요일)
<https://www.theguardian.com/world/2026/sep/16/michelin-starred-seoul-restaurant-evett-fined-dessert-ants>

□ 지사 종합 의견

- (관광시장) 대내외 불확실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름 휴가기간 영국 아웃바운드 시장은 활기를 띄며 소비자 수요가 개선되는 지표가 나타남. 체험, 경험을 중시하는 영국 여행소비자들의 알려지지 않은 지역여행에 대한 관심, ‘나홀로 여행’ 트렌드 증가 등 계속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영국 아웃바운드 시장을 선점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.
- (방한시장) 8월 영국 방한시장은 19,844명으로 전년 동기(15,571명) 대비 27.4%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함. ‘26.1~8월 누적 성장률은 24.6%로 아시아 경쟁국 대비 높은 성장세를 유지 중. 전통적으로 7-8월이 방한수요가 다소 감소하는 쉐더시즌(Shoulder season)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성장세는 긍정적으로 평가됨. 영국 아웃바운드 시장 내 방한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광공사 런던 지사에서는 8-11월 기간 OTA, 항공사 등과 공동모객 캠페인, 히드로 공항 방한객 환대 이벤트 등을 통해 방한시장에 대한 관심과 긍정 이미지를 구축할 예정임.

□ 동향 관련 출처

- 영국관광공사(VisitBritain) 보도자료 (9월)
<https://www.visitbritain.org/news-and-media/industry-news-and-press-releases/visitengland-launches-national-campaign-boost>
- Travel weekly (9.3, 목요일)
<https://travelweekly.co.uk/news/agents-urged-to-ride-solo-travel-booking-wave-for-2027>
- TTG (9.3, 목요일)
<https://www.ttgmedia.com/travel-industry-news/thailand-cut-visa-free-stays-30-days-british-irish-travellers-month>
- Travel weekly (9.8, 수요일)
<https://travelweekly.co.uk/news/travel-spending-rebounds-in-august-following-five-month-decline>
- Travel gossip (9.9, 수요일)
<https://travelgossip.co.uk/product-news/inside-travel-looks-to-expand-under-tourism-strategy-after-japan-success/>
- Travel weekly (9.10, 목요일)
<https://travelweekly.co.uk/news/consumer-confidence-to-transit-via-gulf-shows-signs-of-recovery>
- Independent (9.10, 목요일)
<https://www.independent.co.uk/news/uk/politics/tourist-tax-mayors-andy-burnham-b3047768.html>
- Travel weekly (9.14, 월요일)
<https://travelweekly.co.uk/all-content/heathrow-passenger-charges-to-rise-from-january>
- Travel weekly (9.15, 화요일)
<https://travelweekly.com.au/australians-set-to-pour-1-86bn-into-uk-tourism-in-2027/>
- Travel weekly (9.21, 월요일)
<https://travelweekly.co.uk/news/most-businesses-ahead-of-last-year-on-forward-bookings>
- BBC (9.21, 월)
<https://www.bbc.co.uk/news/articles/cmd68px5qqddo>